

한국형도형심리검사 GEOPIA와 MBTI 선호지표간 관계연구

오미라*, 원상봉²

¹(주)티엔티인재개발원, ²한국기술교육대학교

A Study on the Relational Analysis between GEOPIA and MBTI Preference Index

Mi-Ra Oh^{*}, Sang-Bong Won²

¹TNT HRD Co.,LTD, ²Department of HRD,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인간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론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MBTI성격유형검사와 한국형도형심리성격유형검사 지오피아(GEOPIA)에 대한 연관성 및 일치정도를 분석함으로써 도형심리검사 지오피아(GEOPIA)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도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서울, 경기도와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16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331명을 대상으로 지오피아(GEOPIA)와 MBTI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IBM SPSS 21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검증을 위해 신뢰도(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고 각 변수들 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한국형도형심리 GEOPIA 검사결과와 MBTI 검사결과 관계연구에서는 GEOPIA 성격유형분류에 대해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며, 유의성이 조사된 경우에는 Scheffe의 다중비교에 의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은 $\alpha=0.05$ 이다.

연구결과, 동그라미유형은 외향(E), 감각(S), 감정(F), 판단(J)형과 유사하며, 세모유형은 외향(E), 감각(S), 사고(T), 판단(J)형과 유사하고, 네모유형은 내향(I), 감각(S), 사고(T), 판단(J)형이 강하고, 에스(곡선)형 점수가 높을수록 내향(I) 직관(N), 감정(F), 인식(P) 성향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그라미·에스(곡선)형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형(F), 인식형(P), 세모·네모형 점수가 높을수록 사고(T), 판단(J), 동그라미·세모형 점수가 높을수록 외향(E), 네모와 에스(곡선)형 점수가 높을수록 내향(I)형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MBTI이론에서의 성격진단과 한국형도형심리 GEOPIA검사 간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fundamental information on the validity and credibility of the Korean geometric psychological assessment (GEOPIA) by investigating the degree of relation between the GEOPIA and the MBTI. Data was collected from 331 subjects aged 19 to 70, residing in Seoul, Gyeonggi Province, Jeolla Province, or Gyeongsang Province. Participants completed the GEOPIA and the MBTI during the period of May to September 2017. The study calculated Cronbach's α to verify the tests' validity and reliability through SPSS. For the relational analysis between the results of the tests, we conducted a one-way analysis of variance on the first group of the GEOPIA's personality types, and the Scheffe Test if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found. The study found that the circle type was predisposed to ESFJ, the triangle type to ESTJ, the rectangle type to ISTJ, and S type to INFP. Higher scores of feeling (F) and perceiving (P) corresponded to circle and S types, thinking (T) and judging (J) for triangle and rectangle types, extroversion (E) for circle and triangle types, and introversion (I) for rectangle and S types. These confirmed the substantial relations between the GEOPIA and the MBTI.

Keywords : Personality Psychological Type Test, GPA Shape Psychological Test, Geopia Test, Morphological examination, MBTI, Personality test

*Corresponding Author : Mi-Ra Oh(TNT Human Resource Development Co.,LTD)

Tel: +82-10-3446-5035 email: omr62@naver.com

Received March 30, 2018

Revised (1st April 30, 2018, 2nd May 23, 2018, 3rd June 4, 2018, 4th June 7, 2018)

Accepted July 6, 2018

Published July 31, 2018

1. 서론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급속하게 발전되는 기계, 기술,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오히려 인간이 기계로부터 위협받는 인상에 맞서 갖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인류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며 인공지능을 선도하는 인간에 대한 탐구는 시대를 불문하고 지속되는 연구과제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인간의 타고난 본질적 속성에 대한 탐구는 끊임없는 연구와 비판이 이루어져왔다. 특히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성격심리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의 주장과 이론을 뒷받침하며 꾸준히 발전하여 왔다. 우리 옛말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다. 외면을 보고도 내면을 파악하기 어려운 말을 일컬음이다. 왜 우리는 보여 지는 모습만으로 한 사람의 속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일까?

성격(Personality)이라는 단어가 라틴어의 Personare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는 per(~을 통하여)와 sonare(말하다)의 합성어로서 배수가 무대 위에서 사용하는 가면, 탈을 의미하는 것처럼 눈에는 보이지만 ‘거짓모양’, ‘속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가면 속에 가려진 인간의 생각과, 가치, 삶의 방식, 등의 정보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성격은 타인과 구별할 수 있는 개인의 고유한 것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데(Luthans,1989), 개인 간의 차이를 구별하고 일관되고 독특한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성격에 대한 연구가 오늘 날까지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이유이다.

이처럼 다양한 연구와 방법을 통하여 얻게 되는 성격 정보는 직업적 흥미와도 연관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며, Holland(1977)에 의하면 개인의 성격은 자신이 종사하는 직업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직무특성 등 개인의 상호작용하는 패턴에 따라 직무수행과 성과 또는 직무만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승원(2000)의 연구에서도 직무만족은 어떠한 일의 형태보다 조직적 차원에서의 개인의 차이, 즉 성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성격정보에 대한 평가도구는 한정되어 있으며 더구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문화권의 의식이 반영된 성격 및 심리검사 평가도구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특히, 도형심리검사는 다양한 영역과 대상에게 적용하기에 매우 흥미로운 검사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선형적(transcendental)이고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하

게 사용될 경우 잘못된 결과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 본 연구자는 기존의 검사과정에서의 오류를 보완하고 한국인의 의식이 반영된 한국형도형심리검사 GEOPIA를 개발하여 표준화하였다(오미라,2010a).

그러나 다른 검사도구와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검사도구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MBTI 성격유형검사는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상담이나 성격 측정, 치료 분야에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Davito,1985). 특히 인사, 조직분야에서 관리자들이 자신과 부하직원 성격 파악의 용이함이 입증되면서 그 활용 빈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Moore,1987).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GEOPIA검사도구의 측정결과와 MBTI 성격유형검사의 결과 간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연구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고 표준화된 한국형도형심리검사GPA(Geometry sychological Assessment) GEOPIA가 상담이나 교육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타당성과 신뢰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며,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폭 넓게 사용되고 있는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성격유형검사와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한국형도형심리검사 GEOPIA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형도형심리검사 GEOPIA의 분류유형과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4가지 선호지표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GEOPIA 검사의 성격유형분류에 따라서 MBTI 4가지 선호지표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1. GEOPIA 성격유형 중 동그라미유형은 MBTI 외향(E), 감각(S), 감정(F), 판단(J)과 유사할 것이다.
- 1-2. GEOPIA 성격유형 중 세모유형은 MBTI 외향(E), 감각(S), 사고(T), 판단(J)과 유사할 것이다.
- 1-3. GEOPIA 성격유형 중 네모유형은 MBTI 내향(I), 감각(S),사고(T), 판단(J)의 성향과 유사할 것이다.
- 1-4. GEOPIA 성격유형 중 에스(곡선)유형은 MBTI 내향(I), 직관(N), 감정(F), 인식(P)의 성향과 유사할 것이다.

2. 관련연구

2.1 기하심리학의 역사와 유래

기하학(geometry)이란 토지(geo)와 측량(metry)이라는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공간의 수리적 성질을 연구하는 수학의 한분야로 고대 이집트인들에 의해 발생되었다. 이들은 홍수로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자 토지를 적절하게 재분배하기 위한 도구로 기하학을 연구하게 되었다(현종익,1999). 이처럼 토지측량에 의한 도형의 연구를 기하학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점차 인류의 생성과 발전을 통하여 형성된 기하학적 단위요소들은 오늘날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실생활의 장에서 실용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기하학적 도형의 형태로 다양한 영역에 걸쳐 발현하기에 이르렀다(심정화,2003). 뿐만 아니라 기하학은 예술과 문화, 수학분야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며 인간의 정신적 기제와 내면의 무의식에 이르기까지 기하학 형태로 표현된 다양한 도형의 점, 선, 면의 유희적인 구조를 심리 측면으로 접근하고 해석하고자하는 시도가 이미 오래전부터 나타났다.

1989년 미국의 수잔델린저(Susan Dellinger)박사는 효과적인 팀커뮤니케이션과 동료 및 개인 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하던 중 성격심리와 의사소통스타일에 관하여 신속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기억하기 쉬운 기하학적인 형태를 빌어 동그라미, 세모, 정사각, 직사각, 구불구불한 곡선 등 5개의 기하학적 모양을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 분석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앤젤리스 아리엔은 그의 저서 「SIGNS OF LIFE」(Angeles Arrien,1998)에서 원형, 사각형, 삼각형, 십자형, 나선형을 중심으로 한 기하학적인 5가지 형태의 분류를 시도하여 도형선호도검사(Preferential Shapes Test)를 개발하였다. 그녀는 다섯 개의 도형의 형태를 선호하는 대로 선택하여 나열하기도 하지만 중복, 중첩시킴으로 ‘만다라’로 표현된 복합도형의 형태분석을 시도하였다.

독일에 잉그리트 리델(2002)박사는 원, 십자, 삼각형, 사각형, 나선으로 분류되는 기본적인 기하형태는 삶의 방식과 스타일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앤젤리스 아리엔의 기하형태와 일치되는 다섯 개의 도형은 서로 끌어들이고 결합시킴으로써 세계와 영혼을 나타내는 전래의 상징으로 표현된 ‘만다라’로 불리워졌으며 원, 십자, 삼각형, 사각형, 나선과 만다라를 포함하여 여섯 개의 기하형태를 표현하였다.

국내에서의 도형심리 발달과정은 정범환(2005)에 의하여 연구된 네 가지 도형(동그라미, 세모, 네모, 에스)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서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가장 먼저 세 번 그린 선택도형을 성격유형으로 결정짓게 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됨을 확인하고 본 연구자는 객관적 문항검사를 개발하여(오미라,2010a) 이를 수정 보완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질로 표현되던 성격특성을 도형 그 자체의 형태에 의한 성격분류를 시도하였다.

2.2 한국형도형심리 지오피아(GEOPIA)검사 개요

인간의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해 일관된 행동특성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성격을 유형화하는 연구는 오래전부터 시도되었으며 히포크라테스의 기질론은 유럽을 중심으로 현재까지도 주도적인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오미라,2010a).

고대 그리스의 의사인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 460~377 B.C)는 엠페도클레스(Empedocles, BC 493-430)의 사원소설에 근거하여 인간의 체형(body types)과 성격특징을 연관시켜 분류하므로 성격유형분류의 시초가 되었다(김훈기,2005). 본 연구자는 성격유형론에 기반하여 인간의 성격특성을 기하학적 형태로 분류하였으며 ‘기하심리학적 진단도구’ GPA(Geometry Psychological Assessment)지오피아(약칭, GEOPIA)를 개발하여 표준화하였다.

기하형태는 시각적으로 매우 강렬한 의미전달을 통하여 인간의 정신구조를 자극하고 반응하게 하며 단순하고 명쾌함을 주는 보편적 형태이다. 뿐만 아니라 기하학적 도형의 이미지는 인류의 생성과 더불어 인간과 자연의 질서를 함축하여 단순화시킴으로써 인류역사의 언어와 문자 기호로 사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상징적인 도형의 형태에 따라 인간의 성격특성을 대입시켜봄으로써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해 할 수 있으며, 어렵고 복잡한 측정도구에 대한 편견과 거부감을 감소시키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친숙한 도형기호는 효과적인 소통의 도구가 된다. 가령 동그라미형태는 원만하고 둥글 둥글한 관계형성이 떠오르며, 뾰족한 삼각형은 하늘을 향하여 끝없이 솟아오르는 도전적인 의지가 떠오르고 반듯한 사각형은 정확하고 치밀하며 안정적인 이미지가 연상된다. 이를 유형화하여 성격심리검사 측정도구로 개발하게

된 것이 한국형도형심리검사 GEOPIA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GEOPIA검사는 성격특성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객관적 문항검사(Objective test)와 4 가지 도형그림(○△□S)을 활용하여 내면의 심리·정서적인 면을 진단하는 투사적 그림검사(Projective test)로 결합되어 있다(오미라,2010a). 이는 기존의 그림검사만으로 도형심리를 진단하던 차원을 넘어 두 가지 분석방법을 혼합 사용함으로써 보다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시도로서 기존의 진단도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창조적이고 흥미로운 검사도구로 인정받게 되었다. 특히 도형심리그림검사는 성격특성진단 이외에 심리정서적인 측면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적응적 요인뿐만 아니라 부적응적인 심리 요인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MBTI의 자기보고식 문항검사결과와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성격특성진단을 위한 GEOPIA 문항검사(48문항)를 중심으로 연구에 활용되었다.

2.3 한국형도형심리검사 GEOPIA 성격유형별 특성

지오피아검사에는 유형분류방식에 따라 4 가지유형, 6 가지유형, 외·내향성을 포함한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MBTI의 4가지 선호지표와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GPA도형심리성격유형검사의 가장 기본적인 4 가지 유형을 사용하였으며 유형별 성격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동그라미타입 (○ Round Type) - 개방성

동그라미형은 탁월한 커뮤니케이터로서 매우 사교적이고 활달하다. 우뇌적 타입의 곡선형으로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경향이 있다. 이야기하기를 매우 좋아하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감정이입을 잘 하고 다정다감하며 친절한 이들의 성향은 훌륭한 상담가이며 외교와 타협에 능하다. 현실적인 일에 대한 관심이 많고 어느 곳에 있는지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이다.

2) 에스(곡선)타입 (S Curve Type) - 창조성

곡선경향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틀 안에 갇혀 있는 답답함을 견디기 힘들어한다. 내향적 에스유형은 사색적이며 치밀하고 섬세하다. 다재 다능하다. 도구나 기계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다. 미각이 뛰어난 미식가이며 훌륭한

한 요리사이다. 감수성이 민감하고 순수하며 예술적 재능이 많다. 호, 불호가 뚜렷하고 개성이 강하며 독특하다. 창조적인 연구개발자로서 이들의 특성은 아이디어가 많고 창의적이며 독창적이다.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고, 매우 쉽게 지루해하며 끊임없는 자극을 필요로 한다. 감성에 민감하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한다.

3) 세모타입 (△ Triangle Type) - 도전성

세모도형의 모양과 같이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능동적이고 외향적 경향이 있으며 주도적인 이들은 타고난 리더유형이며 천성적인 기업가이다. 매우 높은 목표를 달성하고 끊임없는 도전을 요구하며 경쟁적인 환경에서 더욱 높은 성과를 낸다. 순간적인 결정을 요구할 때 주저 없이 결정하고 추진한다.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성취하는 강한 의지가 있다. 여러 번 실패할지라도 계속해서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있다.

4) 네모타입 (□, Box Type) - 신중성

정확하고 철저한 이들은 네모도형의 모양처럼 매우 안정적이다. 조용하고 차분하며 침착하다. 신뢰감을 준다. 안정과 안전을 지향하는 네모형은 매우 현실적이고 조리 있게 일 처리를 잘 하지만 매우 신중하고 꼼꼼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내심과 끈기가 있어서 시작한 일은 늦더라도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마무리를 잘 한다. 네모형들은 지도자보다는 안정시키는 사람으로서 행동하는 경향이 많다. 나서지는 않지만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인정받는다.

2.4 MBTI성격검사의 이해

1) MBTI 개요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1920년대 융(Carl. G Jung)의 심리학적 유형을 기초로 하여 1900~1975년에 걸쳐 Isabel Myers-Briggs와 Katherine Briggs에 의해 개발 되었다. 융의 심리유형이론은 인간은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아주 질서정연하고 일관된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출발하였다. MBTI는 자기보고식(self report) 문항검사로서 인식하고 판단할 때의 선호경향을 찾고, 이러한 선호경향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김정택, 심혜숙, 제석봉,1995).

2) MBTI의 네 가지 선호경향

MBTI는 4 가지의 분리된 지표(index)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선호성은 양극성을 띄고 있다. 양극가운데 자신이 선호하는 기능이나 태도를 얼마나 자주, 그리고 먼저 사용하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외부환경에 대한 에너지의 방향인 태도상에는 내향적(Introvert)태도와 외향적(Extrovert)태도, 정신적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감각(Sensing)과 직관(iNtuition), 그리고 판단 기능인 사고(Thinking)와 감정(Feeling)기능으로 분류하고 있다(김정택, 심혜숙, 제석봉,1995). 이렇게 4 가지 지표(EI, SN, TF, JP)마다 양극을 이루는 두 가지씩 선호경향이 있는데 이를 조합하면 모두 16가지의 MBTI유형이 나온다 <표 6 참조>. 관련된 4가지 선호지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외향(Extroversion)과 내향(Introversion)

외향(E)과 내향(I)지표는 에너지의 흐름의 방향이 외부세계인지, 또는 내부세계인지에 따라 결정짓게 된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주로 외부세계로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환경의 자극을 찾아 나서며 외부의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인식과 판단을 사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행동지향적이며 사람만나는 일에 에너지를 동원하기 때문에 사교적이고 자기표현을 솔직하게 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반면 내향형은 에너지의 방향이 자기 내부로 흐르기 때문에 자기영역을 유지하려고하며 내부세계의 개념이나 아이디어에 관심을 쏟는다. 신중하고 사색적이며 자신의 내부세계에 몰두하는 삶의 태도를 말한다.

(2) 감각(Sensing)과 직관(iNtuition)

감각(S)과 직관(N)지표는 양극단의 두 가지 인식방법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가를 밝히기 위해 제작되는데 ‘감각’은 관찰 가능한 사건이나 사실을 더 잘 인식하며 지금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정확하고 철저하게 일처리를 한다. 외부 세계를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오감을 통하여 지각하는 것이며, ‘직관’은 의식의 영역을 넘어서 어떤 사실이나 사건의 이면에 감추어진 의미나 관계, 또는 가능성을 더 잘 인식한다(김정택, 심혜숙, 제석봉,1995). 감각 지향적인 사람은 미각, 후각, 촉각 등 오감에 대하여 민감하고, 직관 지향적인 사람은 육감, 예감, 통찰을 통해 가능성이나 의미, 관계를 더 잘 인식하며 미래지향

적이고 신속, 비약적인 일처리를 한다.

(3) 사고(Thinking)와 감정(Feeling)

사고(T)와 감정(F)지표는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종류의 판단을 더 선호하는가를 밝히기 위해 개발되었다. 사고형은 객관적이며 논리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려고 하며, 감정형은 상대적인 가치와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고형은 옳고 그름, 정의와 공정성을 바탕으로 원리원칙을 중시하고, 감정형은 정서적 측면들을 고려하여 따뜻하고 친화적인 관계와 타인에게 미칠 주변상황과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판단(Judgement)과 인식P(Perception)

판단(J)과 인식(P)지표는 외부세계에 대한 대처양식으로서 판단(J)을 선호하는 사람은 외부세계에 대처해나갈 때 판단과정(사고나 감정)을 주로 사용하며 인식(P)을 선호하는 사람은 (감각이나 직관)을 주로 사용한다(김정택, 심혜숙, 제석봉,1995).

3. 연구분석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2016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서울, 경기도와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70세 미만의 남녀를 대상으로 GEOPIA검사와 MBTI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설문 응답자 총 342명의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을 제외한 후 최종 331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령별, 성별분포와 성격유형별 분포는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성별에 따른 연령의 분포는 비슷하게 구성되었으며, $\chi^2=1.135$, $df=2$, $p=.567$ 로 연구집단들의 성별에 따른 연령의 구성분포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한국형도형심리검사 지오피아(GEOPIA)

한국형도형심리검사 GEOPIA에는 1)성격유형검사인 헥사그램(Hexagram)과 (2)의사소통검사 3)내·외향성검사 4)정서검사 5)투사적 그림검사인 지오그램(Geogram)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인 간편검사 G타입(48문항), M타입(90문항), L타입(127문항)을 사용하고 있지만(오

미라,2013) 본 연구에서는 MBTI의 4가지 선호지표와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네 가지 도형그림에서 비롯된 원형, 삼각형, 사각형, 에스(곡선)를 중심으로 4 가지 성격 유형으로 분류하여 개발된(오미라, 2010a) 성격유형검사 G타입(48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도형의 성격유형을 중심으로 측정된 결과를 사용하고자 한다. 각 12개 문항으로 구성된 도형심리성격유형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동그라미형은 Cronbach's $\alpha=.850$, 세모형은 $\alpha=.894$, 네모형은 $\alpha=.799$, 에스형은 $\alpha=.821$ 로 나타나 모든 측정변인들의 검사지의 내적 일치도는 0.799이상으로 측정변인들의 신뢰성은 충분히 확보됨을 확인하였다.

(2) MBTI성격유형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된 MBTI성격유형검사는 Jung의 성격유형론을 바탕으로 Isabel Myers와 Katharine Briggs에 의해 제작된 검사로서 김정택·심혜숙에 의해 표준화된 한국어판 MBTI성격유형검사는 유형분포 전체표본 13,308명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으며, 한국어판은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재미교포 성인 201명을 대상으로 밝혀진 한국어판 MBTI의 신뢰도지수는 반분신뢰도 E:I 지표.77, S:N지표 .81, T:F지표 .78, J:P지표 .82로 매우 높은 신뢰도로 각각 검증되었다(한국심리검사연구소, 2006. MBTI개발과 활용).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판 성인용 자가채점지 MBTI Form G를 사용하였으며, 총 9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4가지 선호지표에 대한 검사점수는 원점수와 환산점수로 나타나는데 환산점수를 전환시킨 연속점수를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계처리 하기 위하여 IBM SPSS 21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검증을 위해 신뢰도(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다. 각 변수들 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GEOPIA 검사결과와 MBTI 검사결과 관계연구에서는 GEOPIA 성격유형분류에 대해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며, 유의성이 조사된 경우는 Scheffe의 다중비교에 의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은 $\alpha=0.05$ 이다.

4. 연구결과

4.1 GEOPIA검사 결과 및 유형분류

GEOPIA 검사의 분류유형별 점수에 대한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각 유형은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최소 1점에서 최대 5점까지 구성되어 전체 12개 문항을 합산하면 최소 12점에서 최대 60점까지 분포한다.

동그라미형은 평균 47.10점, 세모형은 평균 39.63점, 네모형은 평균 42.81점, 에스형은 평균 40.22점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의 도형심리성격유형은 동그라미형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네모형, 에스형, 세모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복측정분산분석을 통하여 네 가지 유형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F=115.409, p<.001$ 으로 네 가지 유형간에는 상당히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동그라미와 세모형간($F=266.273, p<.001$), 동그라미와 네모형간($F=59.575, p<.001$), 동그라미와 에스형간 ($F=241.814, p<.001$), 세모형과 네모형간($F=75.573, p<.001$), 네모형과 에스형간($F=53.165, p<.001$)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세모와 에스형간($F=1.856, p=.174$)에만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GEOPIA 검사의 분류유형별 성별, 연령별 점수차이를 살펴보면, <표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동그라미형, 세모형, 에스형은 성별, 연령 간 차이가 없으며, 네모형은 여자보다 남자의 점수가 높으며($t=2.380, p<.05$), 30대 이하 보다는 40대, 50대 이상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F=5.026, p<.01$)

각 유형별 점수를 통해서 최상의 점수에 해당하는 성격유형,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통하여 1차 도형심리성격유형과 2차도형심리성격유형을 구분하였다(오미라,2010b). <표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차 GEOPIA 성격유형은 동그라미형이 199명(60.1%)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네모형 73명(22.1%), 세모형 31명(9.4%), 에스형 28명(8.5%)의 순으로 분포하며 전체 대상자의 60%이상인 동그라미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2차 도형심리성격유형에서는 동그라미형 79명(23.9%), 세모형 55명(16.6%), 네모형 126명(38.1%), 에스형 71명(21.5%)으로 구성되어 2차 유형은 네모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차유형과 2차유형을 통하여 복수응답으로 처리해서 빈도분석한결과, 동그라미형은 278명(42.0%), 세모형 86명(13.0%), 네모형 199명

(30.1%), 에스형 99명(15.0%)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는 동그라미형, 네모형의 대상자가 가장 많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MBTI 유형의 ISTJ형, ESTJ형에 가까운 유형으로 MBTI한국 표준화과정의 연구(심혜숙,1990)에서 한국의 일반인 30대, 40대, 5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보면 ISTJ(32.20%), ESTJ(19.20%)로 보고 되고 있는데 이는 16가지 유형분포 중에서도 2개의 유형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4.2 MBTI 4가지 선호지표 결과 및 유형분류

GEOPIA검사결과와 MBTI검사결과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GEOPIA검사와 동일한 대상에 대해

서 실시한 MBTI 4가지 선호지표 검사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통계량 및 유형분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MBTI 검사의 유형별 성별, 연령간의 점수차이를 살펴보면, 각 값은 100점을 기준으로 100점보다 클수록 I, N, F, P의 성향이 강한 것이고, 100점보다 작을수록 E, S, T, J에 대한 값이 큰 것을 의미한다. 전체대상자의 MBTI 4가지 선호지표의 측정치를 살펴보면, E-I점수는 평균 99.27점, S-N점수는 평균 85.73점, T-F 점수는 평균 96.30, J-P 점수는 평균 92.40으로 대체적으로 외향형, 감각형, 사고형, 판단형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der Distribution by Age of GEOPIA & MBTI Survey Respondents (Unit: persons (%))

division		age			Total
		30 or less	40s	50 or more	
gender	male	71(58.2)	31(25.4)	20(16.4)	122(100.0)
	female	109(52.2)	61(29.2)	39(18.7)	209(100.0)
Sum		180(54.4)	92(27.8)	59(17.8)	331(100.0)

Table 2. GEOPIA test reliability (n = 331)

Type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α)	Number of items			
			Minimum value	Maximum value	Average	Standard Deviation
circle	12	.850	2.08	5.00	3.92	0.50
triangle	12	.894	1.50	5.00	3.30	0.64
square	12	.799	1.67	4.92	2.65	0.52
curve	12	.821	1.83	5.00	3.35	0.59

Table 3. Repeated Measurement ANOVA on the scores of the GEOPIA test

circle		triangle		square		square		F(p)
M	SD	M	SD	M	SD	M	SD	
47.10	6.01	39.63	7.66	42.81	6.26	40.22	7.08	115.409***(.000)

Table 4. Gender and Age Score Difference by Type of GEOPIA Test

Type	Minimum value	Maximum value	Total		gender		age		
					male	female	30 or less	40s	50 or more
			M	SD	M±SD	M±SD	M±SD	M±SD	M±SD
circle	25	60	47.10	6.01	47.21±5.24	47.03±6.43	47.13±5.62	46.85±6.37	47.37±6.66
					t=.269 (.788)		F=.144 (.866)		
triangle	18	60	39.63	7.66	39.80±39.52	39.52±7.77	39.51±7.41	38.76±8.33	41.32±7.13
					t=.323 (.747)		F=2.068 (.128)		
square	20	60	42.81	6.26	44.88±5.92	43.19±6.38	42.84±6.71	44.72±4.92	45.36±6.26
					t=2.380* (.018)		F=5.026** (.007)		
curve	22	60	40.22	7.08	39.61±7.26	40.58±6.96	40.39±7.25	39.02±7.12	41.58±6.26
					t=-1.212 (.226)		F=2.478 (.086)		

a, b : Duncan's Multiple Comparison(a<b, α =.05) *p<.05 **p<.01

Table 5. GEOPIA Type Distribution by Sex and Age

(n = 331)

		Primary group				Secondary group					
		circle	triangle	square	curve	circle & triangle	circle & square	circle & curve	triangle & square	triangle & curve	square & curve
Total		199	31	73	28	54	161	63	17	16	20
gender	male (n=122)	73 (36.7)	12 (38.7)	29 (39.7)	8 (28.6)	16 (13.1)	70 (57.4)	16 (13.1)	9 (7.4)	6 (4.9)	5 (4.1)
	female (n=209)	126 (63.3)	19 (61.3)	44 (60.3)	20 (71.4)	38 (18.2)	91 (43.5)	47 (22.5)	8 (3.8)	10 (4.8)	15 (7.2)
	$\chi^2(p)$	1.132(.769)				10.901(.053)					
age	30 or less (n=180)	110 (55.3)	12 (38.7)	42 (57.5)	16 (57.1)	26 (14.4)	86 (47.8)	40 (22.2)	8 (4.4)	9 (5.0)	11 (6.1)
	40s (n=92)	57 (28.6)	12 (38.7)	16 (21.9)	7 (25.0)	16 (17.4)	47 (51.1)	14 (15.2)	6 (6.5)	4 (4.3)	5 (5.4)
	50 or more (n=59)	32 (16.1)	7 (22.6)	15 (20.5)	5 (17.9)	12 (20.3)	28 (47.5)	9 (15.3)	3 (5.1)	3 (5.1)	4 (6.8)
	$\chi^2(p)$	5.005(.543)				3.988(.948)					

Table 6. Gender and Age Score Difference by Type of MBTI Test

Type	Minimum value	Maximum value	Total		gender		Average		
			M	SD	male	female	30 or less	40s	50 or more
					M±SD	M±SD	M±SD	M±SD	M±SD
E-I	17	143	99.27	20.01	102.72±17.47	97.25±21.13	100.38±17.91	98.86±23.36	96.51±20.01
					t=2.539*(.012)		F=.859(.424)		
S-N	12	127	85.73	18.40	88.30±18.06	84.23±18.47	89.31 ^b ±18.98	82.92 ^a ±18.38	79.20 ^a ±13.73
					t=-1.949(.052)		F=8.565***(.000)		
T-F	19	135	96.30	17.43	96.20±16.48	96.35±18.00	98.98 ^b ±16.82	92.64 ^a ±18.37	93.83 ^a ±16.64
					t=-.075(.940)		F=4.852**(.008)		
J-P	25	143	92.40	18.80	94.04±18.48	91.50±18.96	94.91 ^b ±18.60	87.30 ^a ±18.58	92.90 ^b ±18.46
					t=1.186(.236)		=5.132**(.006)		

*p<.05 **p<.01 ***p<.001

성별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E-I유형에 대해서는 남자는 평균 102.72, 여자는 평균 97.25로 조사되어 남자는 내향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들은 남자보다 외향적인 것을 알 수 있다(t=2.539, p<.05). 그 외 S-N유형, T-F유형, J-P유형은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중 S-N형의 경우 p=.052로 여자그룹이 S(감각)형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949, p=.052). 연령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E-I유형은 연령별 차이가 없었으나, S-N유형, T-F유형은 40대와 50대 이상이 30대 이하보다 S(감각)성향, T(사고)성향이 강하며, J-P유형은 연령별로 30대 이상이나 50대 이상 보다 40대에서 판단(J)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판단(J)성향이 높아지고 청소년층으로 내려갈수록 외향성과 인식(P)형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한국판 표준화과정의 연구(심혜숙,1990)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위의 4가지 점수를 중심으로 MBTI 유형 그룹을 조사

한 결과, <표 7>에서와 같이 ESTJ형이 64명(19.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ISTJ형 56명(16.9), ESFJ형 33명(10.0%)ISFP형 33명(10.0%)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의 경우 INFP형, INTJ형, ISFP형, ISTP형이 다소 많으며, 여자는 ESTJ형, ESFJ형이 많은 것으로 유의수준 10%에서는 차이가나타났다. MBTI 한국판 표준화과정에서 심혜숙(1990)은 한국인 남녀 30, 40, 50대 층의 일반인 401명(남자 188, 여자 213)을 대상으로 연구된 결과를 보면 대체로 내향성(66%), 감각형(82%), 사고형(72%), 판단형(78%)인 ISTJ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절대 다수가 감각형(82%) 사고형(64%) 판단형(80%)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볼 때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사고력보다 감정 기능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한국인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서 대체로 근면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화

Table 7. Distribution of MBTI type by sex and age

E-I	S-N	T-F	J-P	Type	Type		age			Total	
					male	female	30 or less	40s	50 or more		
E	N	F	J	ENFJ	2(1.6)	5(2.4)	4(2.2)	2(2.2)	1(1.7)	7(2.1)	
			P	ENFP	9(7.4)	12(5.7)	14(7.8)	4(4.3)	3(5.1)	21(6.3)	
		T	J	ENTJ	5(4.1)	4(1.9)	5(2.8)	3(3.3)	1(1.7)	9(2.7)	
			P	ENTP	1(0.8)	2(1.0)	2(1.1)	0(0.0)	1(1.7)	3(0.9)	
	S	F	J	ESFJ	5(4.1)	28(13.4)	20(11.1)	7(7.6)	6(10.2)	33(10.0)	
			P	ESFP	6(4.9)	7(3.3)	10(5.6)	1(1.1)	2(3.4)	13(3.9)	
		T	J	ESTJ	19(15.6)	45(21.5)	25(13.9)	24(26.1)	15(25.4)	64(19.3)	
			P	ESTP	5(4.1)	12(5.7)	9(5.0)	5(5.4)	3(5.1)	17(5.1)	
			discretion statistic								
								$\chi^2(p)=24.033(.065)$	$\chi^2(p)=33.374(.307)$		

Table 8. Difference between GEOPIA types for MBTI four indicator scores

4 Type	E-I	S-N	T-F	J-P
Total	99.27±20.01	85.73±18.40	96.30±17.43	92.44±18.80
circle Type	95.19 ^b ±19.61	84.52 ^a ±18.30	99.61 ^b ±17.67	92.22 ^a ±19.26
triangle Type	87.39 ^a ±11.94	89.55 ^a ±17.50	87.65 ^a ±15.42	92.03 ^a ±18.49
square Type	111.00 ^c ±16.84	82.23 ^a ±15.93	89.36 ^a ±14.89	88.99 ^a ±16.60
curve Type	110.82 ^c ±19.04	99.25 ^b ±20.41	100.46 ^b ±15.96	103.43 ^b ±18.00
F(p)	21.153 ^{***} (.000)	7.011 ^{***} (.000)	10.100 ^{***} (.000)	4.140 ^{***} (.007)

Scheffé's Multiple Comparison(a<b<c, α=.05), *p<.05 **p<.01 ***p<.001

Table 9. Difference in score between MBTI indicators by type of GEOPIA

4 Type	E-I	S-N	T-F	J-P	F(p)
Total	99.27±20.01	85.73±18.40	96.30±17.43	92.44±18.80	38.149 ^{***} (.000)
circle Type	95.19±19.61	84.52±18.30	99.61±17.67	92.22±19.26	28.966 ^{***} (.000)
triangle Type	87.39±11.94	89.55±17.50	87.65±15.42	92.03±18.49	.630 (.598)
square Type	111.00±16.84	82.23±15.93	89.36±14.89	88.99±16.60	44.313 ^{***} (.000)
curve Type	110.82±19.04	99.25±20.41	100.46±15.96	103.43±18.00	2.355† (.078)

*p<.05 **p<.01 ***p<.001

며 현실적이고 일을 중시하는 성향으로 특징지었다(김정택, 심혜숙, 제석봉, 1995). 그러나 한국남자들이 대체로 내향성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는 동일하지만 여자의 경우 오히려 외향성이 증가되었다는 사실은 기존의 연구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4.3 GEOPIA와 MBTI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GEOPIA검사와 MBTI 4가지 선호지표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GEOPIA검사의 4가지 성격유형과 MBTI의 4가지 선호

지표의 측정변인간 관계를 확인하였다. 점수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을 통하여 분석 한 결과 <표 8>에서 MBTI 네 가지 선호지표 점수에 대한 GEOPIA유형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MBTI 4가지 선호지표에 대해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E-I(외향/내향)형의 경우는 세모형<동그라미형<에스~네모형순이었으며, S-N(감각/직관)형은 네모형~동그라미~세모형<에스형의 순이었으며, T-F(사고/감정)형은 세모형~네모형<동그라미<에스형순이었으며, J-P(판단/인식)형은 네모형~세모형~동그라미<에스형의 순이었다. 따라서 내향(I)형은

네모형과 에스형이 유사하며, 외향(E)형은 세모형과 동그라미형이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으며 직관(N)형은 4가지 유형 중 에스형이 가장 높으나 100점 이상으로 분포하지는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감각(S)형은 네모형, 동그라미형에서 유사하게 나타났고 감정(F)형은 에스형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동그라미는 100점을 넘지는 못하지만 100점에 근사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T)형은 세모형과 네모형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인식(P)형은 에스형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판단(J)형은 네모형이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모형, 동그라미유형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에서 GEOPIA 성격유형별 MBTI 유형간의 점수 차이를 보면 동그라미형의 경우 감각(S)의 성향이 가장 강하며, 다음으로 판단(J), 외향(E)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모형의 경우는 외향(E), 사교(T)의 성향이 가장 강하며, 다음으로 감각(S), 판단(J)의 순이었다. 네모형의 경우는 내향(I), 감각(S), 사교(T), 판단(J)의 성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형의 경우는 내향(I), 감정(F), 인식(P)의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BTI 4 가지 선호지표 점수와 GPA GEOPIA 검사결과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표 10>, 동그라미형일수록 외향(E)($r=-.244$), 감정(F)($r=.223$)과 상관성이 가장 깊으며, 세모형은 외향(E)($r=-.391$), 사교(T)($r=-.196$), 네모형은 내향(I)($r=.188$), 감각(S)($r=.147$), 사교(T)($r=-.242$), 판단(J)($r=-.352$), 에스형은 직관(N)($r=.409$), 감정(F)($r=.106$), 인식(P)($r=.18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Correlation Analysis Result

4 Type	E-I	S-N	T-F	J-P
circle	-.244***	.079	.223***	-.018
triangle	-.391***	.103	-.196***	-.037
square	.188**	-.147**	-.242***	-.352***
curve	-.077	.409***	.106*	.181**
Pearson's Linear Correlation Coefficient				
* $p<.05$ ** $p<.01$ *** $p<.001$				

따라서 연구가설 1인 GEOPIA 성격유형에 따른 MBTI 4가지 선호지표간의 관계에서 가설 1-1)동그라미형은 외향(E), 감각(S), 감정(F), 판단(J)과 유사하며, 가설 1-2) 세모형은 외향(E), 감각(S), 사교(T), 판단(J)과 유사하며, 가설 1-3) 네모형은 내향(I), 감각(S),사교(T),

판단(J)과 유사하며, 가설 1-4) 에스형은 내향(I), 직관(N), 감정(F), 인식(P)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연구가설 1에 대하여 모든 가설이 채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한국형도형도형심리검사 GEOPIA결과와 MBTI 4가지 선호지표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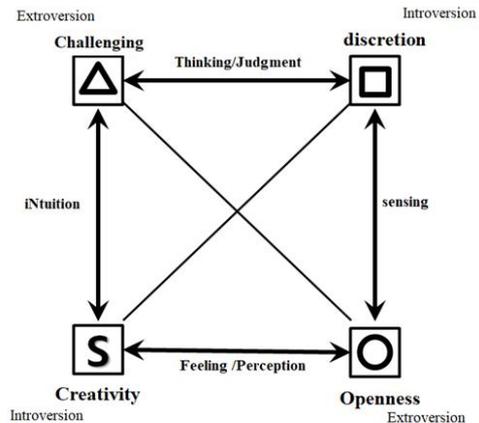


Fig. 1. Relationship between GPA morphological GEOPIA test results and MBTI preference index.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상징적인 도형의 형태에 따라 인간의 성격특성을 대입시켜봄으로써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해 할 수 있으며, 어렵고 복잡한 측정도구에 대한 편견과 거부감을 감소시키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친숙한 도형기호는 효과적인 소통의 도구가 된다. 이를 유형화하여 성격심리검사 측정도구로 개발하게 된 것이 한국형도형심리검사 GEOPIA이다.

국내에서 최초로 2010년 본 연구자에 의하여 개발된 한국형도형심리검사 GPA(Geometry Psychological Assessment) GEOPIA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 문화권의 의식이 반영된 성격 및 심리검사 평가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GEOPIA검사도구가 상담이나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타당성과 신뢰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며,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GEOPIA의 4타입 성격유형검사와 MBTI의 4가지 선호지표 결과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론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GEOPIA 성격유형분류에 따라서 MBTI 4가지 선호 지표와의 관계에서 가설 1-1.동그라미형은 외향(E), 감각(S), 감정(F), 판단(J)과 유사하며, 가설 1-2. 세모형은 외향(E), 감각(S), 사고(T), 판단(J)과 유사하며, 가설 1-3. 네모형은 내향(I), 감각(S), 사고(T), 판단(J)과 유사하며, 가설 1-4. 에스형은 내향(I), 직관(N), 감정(F), 인식(P)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MBTI 4 가지 선호지표 점수와 GPA GEOPIA 검사 간의 관계에서도 동그라미형일수록 외향(E), 감정(F)과 관련이 깊으며, 세모형은 외향(E), 사고(T)와 관련이 깊고, 네모형은 내향(I), 감각(S), 사고(T), 판단(J)의 유형을 따르며, 에스형은 직관(N), 감정(F), 인식(P)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도형심리검사 GEOPIA와 MBTI성격유형검사 간에 높은 관련성이 있음이 확인 되었으며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이나 심리검사도구들이 대부분 다른 나라의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기초로 개발되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형도형심리검사GEOPIA는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이며, 둘째, 4가지 도형을 활용한 투사적 그림검사를 분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MBTI와의 분석을 통하여 타당성과 유용성을 검증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두 가지 검사도구를 동시에 실시한 표준집단의 수가 331명이며 그 가운데 여자의 비율이 209명(63%)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성격분석에 있어서 성별비중에 따른 편파성이 야기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자의 비율을 높이고 균형 잡힌 표집으로 연구를 수행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서울, 경기도와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에 거주하는 일반인 33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향후 전국단위의 표집을 통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GPA도형심리성격유형검사 GEOPIA가 상담이나 코칭, 교육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과 신뢰도를 근거로 보다 더 확장된 진단지 개발이나 다른 연구변인들과의 실증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Kim, HJ, "Understanding Psychology", HyungSil Publishing Co., 2005.
- [2] Jung Taek Kim, Hye Sook Sim, and Seok Bong J,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MBTI (1995)," Korean Psychological Research Institute, pp. 301-321, 2006.
- [3] Lee, Seungwon, "A Study on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MBTI Personality Types",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2002.
- [4] Omira, "The technique of reading me with geometric psychology", the wisdom to know others. Bookshelf, 2010a.
- [5] Omira, "Relationship Psychology through Shape Psychology", Bookshop, 2010b.
- [6] Omira,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hape Psychological Test", 2013.
- [7] Shim Jung Hwa, "A Study on the Simulation of Geometric Shapes of Young Children", 2003.
- [8] Jeong Bam-Hwan, "Graphic Worker's Workbook", Korea Graphic Design Consulting Institute, 2005.
- [9] Hyun Jik Hyun, "Elementary Mathematics Theory", Academic history, 1999.
- [10] Im Albany,"A Study on the Impact of Personality Types on Performance Predictio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Konkuk University, 2005.
- [11] Angeles Arrien, "SIGNS OF LIFE", Putnam Pub Group, 1998.
- [12] Susan Dellinger, "Communicating Beyond Our Differences : Psycho-Geometrics System" (Prentice-Hall / Jade Ink, 1989/1996), Kim Se-jung, If you know shape psychology, conversation is fun. W Media, 2007.
- [13] Fred Luthans, Organizational Behavior, McGraw-Hill, Inc., 1989.
- [14] DaVito A., A Review of the MBTI, In Mitchell, J.(Ed.), Ninthe Mental Measurement Yearbook, (pp. 1030-1032),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95.
- [15] Moore, T., "Personality tests are back", Fortune, March, pp. 74-82, 1987.

오 미 라(Mi-Ra Oh)

[정회원]



- 2008년 2월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대학원(진로 및 직업상담 석사)
- 2017년 2월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대학원(인력개발 박사 수료)
- 2017년 ~ 현재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특임교수

<관심분야>

기하심리학, 진로상담, 코칭, HRD, EAP

원 상 봉(Sang-Bong Won)

[정회원]



- 1983년 2월 : 서울대학교 농과 대학원 석사
- 1987년 10월 : 일리노이 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 직업기술교육 전공
- 1992년 10월 ~ 현재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HRD, 직업기술교육